

|오늘의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 하리라.

-에레미야 5:1

통 권 _ 제 227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4월 20일

함즐함울

www.pcltv.org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 -2008년 봄 세례식 중강당에서 거행



2008년 봄 세례식이 지난 4월 6일 오후 4시에 중강당에서 거행됐다. 실 내악의 연주 속에 80여명의 교우들이 세례입교를 받는 모습은 자못 진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다시 태어난다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들은 지난 5주동안 세례에 대한 기초 지식과 조별로 나눈 자신의 신앙문제와 세례문답과 세족식을 거치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됨을 몸소 체득했다.

김도복 장로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거듭나는 이 순간

을 잊지 말라”며 “천국의 자녀됨을 자랑스러워하며 지금까지는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했듯이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남성 찬양대의 ‘놀라운 놀라운 날이 였네’라는 찬송으로 창단 후 처음 공식 예배에서 세례받은 교우들을 축하해 주었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말씀을 통해 “세례를 받는 일은 기쁜 일이고 일생의 가장 큰 일이라 하며 그 동안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귀한 시간이라”며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가

붙어있는 것 같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접붙임 받을 때 영적인 열매가 맺히며 지금까지 못 느낀 것과 헛된 것을 벗어버리며 삶이 놀랍게 변해가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례식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대학 한국어학과 출신 파르비나 유학생도 세례를 받았다. 파르비나는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하며 우즈베크어로 돌아가서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파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신형섭 기자

로 템 나 무

함께 가는 길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59:17)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앞에 가는 차가 한없이 느리다.

앞질러 갈 수도 없는 길이기에
급한 마음을 꼭꼭 누르고 따라간다.

그렇게 주님은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고
이곳 저곳 한 눈 팔며 가는
나를 기다려 주셨다.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한참을 돌아가는데도
잠잠히 함께 가 주셨다.

나와 함께 가는 길이기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엄혜숙 기자

기아대책

대한예수교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기아대책〉과 〈주님의교회〉가 함께하는 **자선바자회**

지구촌 굶주린 이웃에게 식량과 사랑을!

2008. 4.26(토) 10시(오전)~4시(오후) 정신여자중등학교 운동장

*문의:조성득 안수집사 016-332-9464 자세한 내용은 4월 6일자 주보간지 참조

참여 방법

- 1) 물품을 기부하여 주십시오.
- 2) 판매팀,홍보팀,운영팀,먹거리팀 등으로 봉사할 남녀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학생인 경우 자원봉사확인증 발부)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부서탐방	3면~8면
어와나 캠프	8면
08년4월 당회결의사항	8면



길, 진리, 생명

요한복음 14:1-6

기독교는 잘 죽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종교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천당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잘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잘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함께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 나로 말마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헬라 철학자들도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믿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이들은 로고스, 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고 진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올바르게 정립할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도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말한다면 진리는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은 삶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실체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마,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복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의 실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죽음의 세력을 이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누가 이렇게도 정확하고도 생생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죽음입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고통이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포기가 없습니다. 끝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주님께서 먼저 가서 예비하신 처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 준비한 처소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죽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영접 받고 주님께신 곳에 갑니다.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주님 계신 곳입니다. 마치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는 장군이 영접을 받는 것과 같고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오는 선수를 영접하는 것 같습니다.

잘 살기 위한 종교

왜 죽음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을 때 죽음 자체에 대해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사건이 아니라

삶에서 분리된, 한 사건도 아니라 일평생의 삶과 연결하고 있는 연결 고리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삶의 마지막 종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모든 삶도 당연히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만 바뀌어도 지금의 모든 것은 저절로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오늘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지금의 삶을, 오늘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어느 한 순간도 죽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목표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출발이 다르고 과정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잘 죽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종교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천당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잘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잘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주님께게는 죽음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죽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죽음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

그러면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길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결과 속이 하나된 길이요, 말과 행동이 하나 된 길이요, 그리고 믿음과 삶이 하나 된 길이었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구나! 저는 이를 "통합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통합의 길이란 말은 하나님의 길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싫어하셨던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의 위선을 싫어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흠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겉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속에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마23:27). 무덤이 있는 곳에 죽음이 다스리는 곳에 거짓과 위선이 있습니다. 속에는 온갖 거짓이 있고 그러나 겉에는 화려한 위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겉과 속이 다릅니다. 차라리 죄인들은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받아주셨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사람의 동기나 속 마음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동기가 발라야 합니다. 바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세입니다.

사랑의 진리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성도들이 가져야할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진리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해야 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진리가 진리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진리에 사랑이 동반되지 않을 때 그 진리는 자칫 사람을 교만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웃을 해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 없이 진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눈먼 진리일 뿐입니다. 주님의 진리는 사랑의 진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되 무엇보다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고통하는 것을 아셨고, 목자를 찾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바라보되,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세상의 진리입니다. 이 사랑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고 용서를 구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이웃의 아픔을 압니다. 이웃의 참 가치를 압니다. 고통을 함께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도 고백하고 용서도 구하고 도움의 손길도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진리는 사랑의 진리입니다.

생명의 삶

주님이 보여주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생명을 삶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으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삶은 장송곡이 아니라 기쁨의 찬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 소식입니다. 전혀 죽음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으로 잔치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나왔습니다. 노래가 다시 살아났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축복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란 뜻입니다. 성도의 삶은 잔치를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삶도 잔치가 되어야 하고 예배도 잔치가 되어야 하고 성도의 모임도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잔치를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마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매일 매일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세상을 알수록 더 우리는 어딘가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종교들이 삶에서 도피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영생의 삶입니다.

복지사역본부 지난호에 이어

꿈나무 사역팀

팀장: 이봉순 권사



소년소녀가장 청소년과 편모, 편부슬하의 청소년,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용돈지원과 급식비 지원을 맡고 있다.

현재 대상인원은 약 150여명이다.

현재의 팀원 모두 올해 처음으로 봉사하여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없지만 저들의 어려운 사정, 특히 할머니들이 부모가 없는 손주들을 돌보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할 때 우리가 더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며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실 것을 권하여 귀한 열매로 거둘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주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연락하면 꼭 필요한 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도 드린다.

늘 감사하는 마음에 부족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믿음위에 설 수있게 되기를 바란다.

기관선교사역팀

팀장: 이재현 안수집사

기관선교사역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잘 돌보지 않는 노약자, 치매, 정신질환자, 말기암환자,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 불우한 어린이들을 보호 수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설립자의 헌신적인 자기희생이 요구 되는 기관으로써 재정이 부족한 단체에 후원한다.

단순히 신청만 받아 후원 하는 것 보다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같이 맞대고 기도를 함으로써 말 할 수 없는 은혜를 나눈다.

지난 1분기 동안 8곳의 기관선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사, 면담, 체험을 통해 현지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인지 하게 되므로써 5기관을 지원 종료 시키고, 8기관을 신규 발굴하였다,

함사랑기금팀

팀장: 정준호 집사

복지사역본부에서는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소규모창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자활자립지원사역인 함사랑기금팀을 설립하였다

자활의지와 창업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 창업할 수 없는 이들을 도와줄언덕을 만들어 재생 기회를 제공 한다.

1)제도권 금융에서는 대출을 받을 길 없는 사람들 중에 자립의지가 강하고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 또는 공동으로 창업을 원하는 분들로 한다.

2) 신청은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 필요한 자금 액수와 상환 계획은 신청자 스스로가 정하게 한다.

3) 대상자는 선정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사업성 및 재무능력, 신청인의 사업능력,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자활의지 및 신뢰성 등에 관한 평가기준표를 사용하여 엄정한 심사로 선발한다. 특히 미혼모나 모자(녀)가정을 우선 선발하려한다.

4) 지원 내용은 기술 지도, 판로 개척, 홍보, 마케팅 전략 등 컨설팅 및 창업교육을 해 준다.

대출금 범위는 300-700만원 (평균 500만원)

이자율: 무이자 또는 연 2%

자세한 문의는 함사랑 기금팀 정준호 집사에게 문의 바람

부서탐방-청소년사역본부

유소년축구교실

팀장: 이용수 안수집사



유치부 아이들과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재미있게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님의 교회 열린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주일 오후 축구 교실을 시작하지도 벌써 다섯 해가 지났다.

주님의 교회 유소년 축구교실은 날씨와 방학 기간을 고려하여 1학기는 3월초부터 16주간, 2학기는 9월초부터 12주간 운영된다. 축구 교실 반 편성은 신청 인원내 따라 조정되나 가끔 학년 별로 반을 편성한다.

“축구는 하나님의 동산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인간들이 발전시킨 수많은 놀이 가운데 하나“ 라고 이야기한 마크 로크스의 (축구와 하나님 나라, 2006) 표현처럼 주일 오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뛰고 즐기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

학원 사역팀

팀장: 김영숙 권사

주님의 교회가 정신학원 안에 자리를 잡은 날부터 정신학원과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며, 학원 사역팀을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주신 복이라 생각한다. 학원 사역팀에 소속되어 봉사하시는 분들은 약 150여명이다. (여자 학교라는 특성상 여성 분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중학교에서의 활동은 밀알 수련회에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믿고 싶다는 학생을 특별히 선별하여 일대 일로 결신 시키는 시간을 갖게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2학년 전체 600 여명의 학생을 한 명의 봉사자와 5~6명의 학생이 한 팀을 이루도록 구성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는 일을 일년에 걸쳐서 하게 되며 기도 어머니와 딸들로써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나누기도 한다.

부서탐방-봉사사역본부

봉사부

팀장:한형석 안수집사
문희주 집사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장 자연스런 모습 중의 하나는 아마도 커피를 마시는 일이다. 항상 로비에 따뜻한 커피와 동글레차를 준비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침 6시 커피물을 끓이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봉사부원은 주방에서 컵을 운반하여 예배 참석하는 분들에게 사랑을 대접한다. 하루에 적용되는 커피는 6,000잔 정도가 된다하니 그들이 컵을 씻고 소독하는 봉사활동은 숨쉬 틈이 없다. 한형석 봉사부장은 “교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처음 온 교우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이 일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100여명 이상의 일손이 필요한데 아직도 봉사를 하기에 인원 모자란다고 하나님 사업에 몸은 피곤하나 영혼이 평강을 원하는 사람은 봉사부로 오라”고 적극 홍보했다.

결혼안내팀

팀장 :서광숙 집사



본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은 토요일에 펼쳐지는 결혼식이다. 본교회 성도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의 편리성과 넓은 주차장으로 하객들에게 만족함을 선사할 만하다.

결혼예식팀은 두 팀으로 나누어 8명이 격주 2교대로 토요일만 봉사한다.

결혼예식팀은 하례음식과는 관련이 없으며 혹시 저소득층, 불우가정이 결혼식의 도움을 받고자 원할 때는 교회 지원팀에 상담할 것을 권했다. 또, 서광숙집사는 결혼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에 착석하여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로비 꽃길을 피해 좌우로 이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사역팀

팀장:유희문 안수집사



방송사역팀은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위한 방송, 영상 음향을 조정 관리한다. 현대사회는 미디어의 시대라고 말한다. 미디어는 불행하게도 첨단장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교회 스크린만 보더라도 화면이 선명하지 못 한데 이는 기자재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사역팀 유희문 안수집사는 “장비의 신형확보를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차안내부

팀장 최재규 집사

주차부는 30명의 봉사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3시까지 성도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상 인원부족과 주차의식미비로 주차계도에 어려움이 있다. 주차 팀장 최재규 집사는 “인원보강이 필수적이며 주차안내시 인원부족으로 신속한 안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차량운행때는 반드시 안전 수칙 준수가 최우선이며 귀가시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서 주차안내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또, 운동장 입구에서는 주차를 금지하고 상황에 따라 차량주차 방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안내에 성실하게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성주차요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방부

팀장:김청자 권사
이지연 권사

구역에서 주방봉사를 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과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다. 새벽부터 땀흘리는 집사님들이 있다. 새벽 5시반팀 오전 8시반팀 오전 11시반팀 3교대로 주방 가마솥은 국수를 삶아낸다. 전체 기존 봉사 인원

와 교우들이 개인적으로 주문하는 서적은 주문 일주일 후 서가에서 만날 수 있으며 서적판매에 따른 수익금 전액은 교회에 납부하여 선교 사업에 쓰고 있다.

서가에 비치된 서적은 판매를 위한 것인 만큼 페이지를 접어놓거나 낙서를 하는 등 서적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렸다.

자원봉사연결팀

김유호 안수집사

본교회 자원봉사 연결 팀은 교회내외에서 발생하는 일에 봉사자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태안반도 기름

도서실 사역팀은 자원봉사자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요일 주일 책을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며 대출대상은 정신여중고 학생, 지역주민, 본교회성도 등이다.

대출방법은 등록교인으로 대출카드를 작성한 후 회원명부에 등록하면 대출증을 발급해주고 대출증을 이용하여 5권씩 1주일 대출이 가능하다.

부서탐방-목양사역본부

남성찬양대

팀장 :박동수 안수집사

진)을 패용하고 사전에 촬영 부분을 분담 하고 있다.

특별 공연순서 외에 예배의식중에는 “은혜 와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예배를 드릴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린다.



새벽기도사역팀

팀장 최종명 안수집사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는 동안 위기와 고난은 함께 한다.

그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주방부



서적사역팀



주찬양대



자원봉사연결팀



역사보존팀

2008 사역본부를 찾아서! 주님의교회

이 50여명으로 하루 3,000그릇의 국수를 삶아내기는 벅하다. 매주 구역에서 3팀씩 도와주고 있으나, 마무리시간대(오후 1시부터 2시반사이)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주방팀장인 김청자 권사는 “처음 주방봉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의 수고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10여 년을 한번도 거르지 않고 국수를 삶아내는 그 노고에 고개가 스스로 숙여진다고 말했다. 가장 당혹스러운 때는 구역에서 주방봉사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두 사람 밖에 오지 않아 일손이 부족한 때였다고 회고했다.

서점사역팀

팀장 장득순 안수집사

서적사역팀에서는 교우들이 기독교 서적을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적을 비치해 놓고 판매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월만한 물가’ 안의 한 쪽 코너에 위치한 서적사역팀의 판매 시간은 주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이다. 평일은 ‘월만한 물가’ 카페 봉사팀에서 판매한다.

올해 3월부터 예배할 때, 새찬송가를 사용함에 따라 새찬송가 보급판을 비치하고 있으며, 모든 서적은 시중가의 90%에 판매한다.

또한 담임목사님이 추천한 권장도서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헌옷을 모아서 현지로 보낸다는지 앞으로 전개될 자선 바자회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을 한다. 이는 상시적이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활동하며 교회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월만한 물가팀

이은우 권사

‘월만한 물가’는 주일에는 봉사부원이 봉사 장소로 평일에는 카페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월만한 물가는 교회가 삭막하고 마땅한 친교공간이 없어서 성도들의 친교와 ‘북카페’를 운영하기위해 3년 전에 오픈되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수익금은 모두 교회에 헌금으로 처리한다. 봉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은 가끔 다방종업원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소란스럽게 떠들어 무안할 경우도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월만한 물가를 운영하는 집사님은 현재 10명이 교대로 봉사하고 있다.

도서실사역팀

팀장: 최정숙 집사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은 도서실이다.

주님의교회 남성찬양대는 여섯 번째찬양대다

우리 남성찬양대는 매분기마다 한번씩 있는 세례예식때 찬양을 전담한다.

3월13일 42명의 대원으로 창단되어 4월6일 세례예식 때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바쳤다. 음악에 대한 부족한 것이 많고 연습할 기회도 많지 않지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심에 감사한다. 2월에 새로 조직된 찬양대라 대원의 충원에 역점을 두고 대원의 결속을 굳게 다지는 일에 전념한다. 남성찬양대의 부족한 부분을 격려해주고 또 관심이 있으면 직접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사진사역팀

팀장: 고석창 권사

은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신앙공동체의 소속감과 관심을 갖도록 소개함과, 체계적으로 자료를 보존하여 신앙 유산의 모습들을 남기고자 금년에 사진사역팀이 신설 되었다.

70여개 사역분야와 균형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진사역팀에 많은 분들의 봉사가 필요하다. 예배의식중에는 사진사역팀에 등록 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나와 촬영하는 관계로 예배분위기를 흐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소속 명찰(사

달라지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한다.

새벽시간에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한다.

현재 고통과 절망으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윗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새벽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절망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낼 수 있었다. 하루의 문을 여는 새벽에 기도를 드리며 공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되기를 원한다. 새벽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잘못된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잠잠히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새벽제단이 되기를 소망한다.

안내부

팀장 강진식 안수집사

이른 아침부터 밝은 얼굴로 반갑게 교우들을 맞으며 예배 순서지를 나누어 주고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교우들에게 예배를 안내해준다.

교우들이 편안히 예배를 드리도록 자리를 안내하며 특히 많은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는 3부예배시는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는 중예

배설, 자모실, 제3집회실 등에서 예배를 편안히 드리게 안내한다.

안내부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본당에 들어갈 때 물컵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필히 가지고 들어갈 교우들은 패트병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바랐다. 예배 시작 전 목상을 드리는 교우들에게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지 않기를 바라며 앞자리부터 안 쪽부터 차례대로 앉기를 바랐다.

조그마한 일을 먼저 실천하여 교우들 모두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 한다.

70여명의 안내부 봉사자들이 1부 예배부터 4부예배까지 수고를 하고

신앙공동체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정립하는 근거가 되며 교역자, 제직, 성도에 이르기까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고취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예배, 봉사, 교제, 선교, 교육의 기능에 따른 다양한 사업에 대한 '증거'를 후대에 전승시켜 주며 교회사 연구 및 편찬사업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08년도 사업으로 창립 20주년 기념 역사 기록 및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창립 주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상영할 회고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한다. 아울러 교회 기록물 관리와 보존센터 나아가 교회 종합 홍보센터, 주님의 교회 온

중보기도팀

팀장 신영숙 권사

2005년 부터 시작된 주님의교회 중보기도사역은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헌신자들 80 여명이 중보기도실에서 1주일에 1시간씩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실 사역과, 레위, 라파, 엘리야, 미션, 비전 등 5개 그룹의 기도팀 사역이 있다.

총 9개 팀이 있으며 예배,환자,선교,교회비전,긴급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며, 매월 첫째 목요일의 월례회를 통하여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다.

통역사역팀

팀장 한진희 집사

2002년 8월에 신설 되었으며, 지금은 6명의 통역사역 담당 팀 (권미나, 김재희, 나혜원, 최수진, 한진희, 황선영)과 2명의 안내사역 담당 팀 (나혜원, 태재승) 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요일 오후에 담임목사로부터 설교본문 (15-20쪽)을 전달 받아 번역하여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설교에 따라 읽어 가는 작업을 한다. 설교본문을 받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어느 때는 밤 10시경에 아니 더 늦게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거의 모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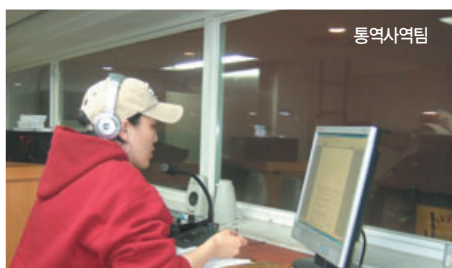
다를 비추는 빛의 천사들



도서실사역팀



남성찬양대



통역사역팀



중보기도팀



영어예배부

있다.

새가족 사역팀

팀장 동현수 안수집사

새가족사역팀은 전체 30명이고 그중 양육교사는 10명이다.

안내데스크 안내와 새가족교육을 맡고 있다. 새가족이 들어오면 접수하고 4주간의 교육을 한다. 교육이 끝나면 2달에 1번씩 새가족 환영회를 전체적으로 열고있다.

새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정착시키는 과정을 맡고 있는 사역을 한다.

새가족에게 해당 구역을 소개해서 정착시키거나 사역을 하도록 유도한다. 타 교회에서 오거나 처음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세례도 받을 때 팀원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요즘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30여명의 인원이 새가족사역에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한다.

역사자료보존팀

팀장 배성은 집사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구약 신약 시대에 생산된 전승기록을 보존하여 성경을 이룬 것처럼, 교회 기록관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식구의 기념 공간의 역할을 담당할 기록관을 개관하고자 한다. 또한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을 수집 정리하고 현행 기록물 관리 체제를 정립하고자 한다.

영어예배부

팀장 이혜경 집사

주일 오후1시30분에 1층 소예배실(애니 엘리소홀)에서예배를 드린다.

지난 3월에는 60여명이 함께 모여 3주년 기념예배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 찬양드렸다.

주일11시30분과 3시에 소그룹활동이 있고,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는 수요기도회로 모인다.

또한, 찬양과 기도의 밤, 여름과 겨울 수련회, 계절별 야외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다.

올 여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와 해외 선교와 봉사활동에 여러 지체들이 참여하려 한다.

영어예배부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지체들과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는 지체들, 외국인과 내국인, 남녀노소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는 공동체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린다.

중보기도 받기를 원하는 분은 필요한 기도제목은 누구나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기도 카드를 넣으면 중보기도팀원들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린다.

교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월6일부터 시작된 중보기도연속세미나<기도전수>는 7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하여 더 많은 헌신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

인터넷 사역팀

팀장 손철규 안수집사

인터넷 사역팀은 교회 홈페이지 www.pcltv.org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배및 교회안내와 설교 다시듣기 서비스(VOD), 교회 활동사진, 합침함을 다시보기 서비스(PDF) 등 교회활동 전반에 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일설교 뿐만 아니라 수요설교도 업로드하고 있으며, 12단계 성경공부도 online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교회 각 부서의 개별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어 교회의 여러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많은 교인 성도님들이 방문하시어 주님의 은총을 홈페이지에서도 느끼기 바란다.

전문적인 통역사가 아닌 아마추어인 관계로 현장에서의 동시통역이 거의 불가능하여, 미리 번역된 설교본문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설교본문을 받는 즉시 번역 작업에 들어가면, 대개 밤을 새워 번역하기가 일쑤이다. 토요일 반 나절 동안 성경과 설교말씀을 놓고 씨름 하는 그 시간,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며, 오직 말씀에 몰두 할 수 밖에 없는 이 시간,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이라 생각된다. 작은 것에 충성 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라 생각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 불평과 불만 없이 서로의 귀함과 소중함을 알며 봉사하는 통역사역 팀원들과,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돈다.

부서팀방-선교사역본부

단기선교팀

팀장 이희숙 권사

단기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멋진 일이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에 따라, 떠나는 자와 남아서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가 구역을 중심으로, 선교사와 그 나라 땅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했다. 주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눅 4:43) 말씀하신다.

영적 도전은 우리를 깨운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축내지 않고 그대로 지킨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성경은 정의한다. 단기선교는 일상을 떠나는 일이고, 낯설기 때문에 두렵고,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다. 1주에서 6주 정도 주님의교회와 관련된 선교지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동참한다. 익숙한 울타리 밖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는 일을 두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한다.

특히 2008년도 주님의교회 성도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한다. 선교사역에 동참은 타문화권에 가서 협력 선교사와 동역하는 일,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일, 물질로 지원하는 일, 교구 또는 구역을 중심으로 합심 기도로 동역하는 일 등이 있다.

군부대교회 사역팀

팀장 윤의탁 안수집사

우리팀은 1년에 15차례정도 군부대를 방문하고 예배를 같이 드린다. 신병교육대와 기존부대에 속해있는 군인교회에서 그들의 가족과 예배도 드린다.

젊음이 있고 신앙이 없는 영혼들에게 예배시 세례를 드리기도한다. 많은 장병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기간 동안 무사히 지내고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가지겠다고 기도하는 순간은 참석한 사역팀원들은 장병들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전율을 느낀다 한다.

군부대교회 방문시 그 곳에서 필요한 소중한 물품들 전달한다.

살롬찬양대, 기쁜 소리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청년부의 멋진 율동으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는다.

도시개척교회사역팀

팀장 이원철 안수집사

도시 개척교회 사역팀은 중소도시에 기반을 둔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팀으로, 현재는 지원교회가 일부 농어촌소재 교회도 있으나, 점진적으로 도시소재 교회로 한정 하려 한다.

사역팀은 매월 소정의 지원금 송금과 매번 발간되는 <함줄함울>과 담임목사의 주일설교와 12단계 성경공

부 테입을 각 교회에 발송하고 있으며, 각 지원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교회 각 구역이 1구역 1기관 혹은 미자립교회와 결연을 맺어 관심과 기도, 헌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미자립교회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되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되어야 할 사역이다.

미술인선교회

팀장 동경숙 집사

창립 4주년을 맞아 대외적으로 하남 외국인 비전센터에서 근로자 자녀들 미술 수업을 진행한다. 개포동 미술치료 시범 중학교에서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들과의 수업을 진행하며 선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월만한 물가에 미술인들의 그림을 두달에 한번 정도 바꾼다.

화장실문에 좋은 성경 구절을 넣은 작은 액자를 부착할 것이다.

올해는 선교를 위한 저회 회원들의 그림으로 교회 달력을 만들 예정이다.

11월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미술인 전시회가 있다.

수익금의 반은 선교기금으로 쓰인다. 무지개 축제에서 한부스를 맡아 행사를 진행한다.

의료선교팀

팀장 김학원 안수집사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치위생사,미용사와 기타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국내외의 외국인들을 향한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주일예배 중 교우들의 응급상황시 이를 돌보아 드리는 일을 맡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매달 하남외국인 비전센터와 광장동 나섬공동체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종합 진료와 미용봉사를 하고 있으며, 해마다 대규모의 단기의료선교팀을 구성하여 해외의 선교사와 협력하여 의료선교를 한다.

올해부터는 단기선교팀과 연합하여 해외선교의 일환으로서 의료봉사를 하려한다.

지하 중예배실 앞의 로비 공간에 진료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일의 예배중에 크고 작은 응급상황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매달 의료선교팀이 나가야 할 방향과 우리 봉사활동의 평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위로와 교제도 함께 나누고 있다.

북한선교

팀장 김성구 안수집사

북한선교는 현실적인 한계로 우리가 직접할 수는 없어 전문성을 갖추고 또, 여건이 되는 사회단체등을 간접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

현재 지원사업은 태국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탈북자들에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의료,심방 사업과 구 성경책 수집, 전달하였다.

'성경책 보내기' 운동은 탈북자들이 전달받은 성경책을 늘 휴대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

주한 외국인 선교팀

팀장 김두용 집사

주한 외국인 선교팀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한 외국인들을 돕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10명의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외국인 비전 센터에서 의료 선교팀과 함께 매월 한차례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5월부터는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 가족과 특별히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민자 가정 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선교팀

팀장 박지권 집사

캄보디아 하면 앙코르와트와 킬링 필드를 연상한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육 의료와 서구문명이 전해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남에게 베풀 위치에 있고 이제는 그 열매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이다.

오래 전 우리교회의 뜻있는 의사 교우들이 개별적인 헌신의 노력으로 시작되어 최근 2년 전부터 의료인, 청년부, 일반인 연합으로 단기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캄보디아 선교팀의 비전은하나님의 몸 되는 교회,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 120년 선교의 산 증거 정신학원에 터 잡아 함께하는 교회의 방향에 맞추어

이 땅에 의료선교의 씨앗이 뿌려진 세브란스와 같은 열매를, 교육의 씨앗은 정신학원같이 인재육성의 산실의 열매로 맺었던 실증적 모델을 표본삼아 인도차이나반도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 캄보디아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자 한다.

농어촌 교회 선교팀

팀장 홍운식 집사

미자립 농어촌 교회(2008년 4월 현재 31개)를 재정적으로 지원(선교비 월 20만원/2년간)하고 있다.

농어촌 교회는 지역적 특성상 재정의 자립이 어렵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 처해 있는 농어촌 교회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교역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어촌 선교에 더욱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농어촌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은 농어촌 선교팀에 연락을 주시면 연결해 드립니다.

선교중보팀

팀장 이병직 안수집사

해외에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전체 교인이 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길 원한다. 선교기도후원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후원이 가장 중요한 기본 목적이다.

선교중보팀의 역할은 매월 첫 주일 열리는 선교중보기도모임의 진행과 각 구역에서 맡은 기도후원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구역과 선교사와의 연결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기도제목과 선교현장의 소식을 모아 전교인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한다.

부서탐방-목양사역본부

호산나찬양대

대장: 설영운 집사

참석인원은 60여명이다.

목이 잠겨있는 새벽부터 연습을 하며 교우들과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다.매주 주일 새벽 6시에 연습을 시작한다.1부 예배가 끝난 뒤 9~10시 30분까지 연습을 한다.

태안반도 봉사같은 교회 행사에 단체로 참여하기도 했다.

찬양대 지원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참석한다.

거의 연령대가 50대가 넘다보니 아침부터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고 나면 지치기도 하지만 사역을 하는 것은 그냥 기쁘다 한다.

호산나 찬양대원들 건강하게 항상 오래오래 봉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봉사하실 가족들을 모집한다.

성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대장: 박인호 안수집사

아마추어리즘과 전공을 한 사람들의 프로페셔널리즘이 비교적 잘 어우러진 찬양대로 연주하는 곡의 깊이와 폭을 잘 조절해온 찬양대다.

2부찬양대를 지휘하는 김인수 집사는 주일아침 일찍 나오는 통에 목이 잠겨 있음을 알고 기초적인 발성과 연습중에 간간히 알려주시는 발성의 기법등이 찬양대원들의 음악수준을 한층 끌어 올리고 있다.

예전에 프로지향적이던 색깔을, 약간은 모자라도 주님께 향한 열정과 찬양의 마음을 좀 더 앞세워 성도들에게 부담이 없게 한 것도 하나님 공동체로 새롭게 이루어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참석은 120명에 가깝고 평균 95명 정도참여로 2부 예배 찬양을 드린다. 연습때 열정과 간구와 기도를 그대로 여과 없이 내보이고 찬양을 통하여 나오는 기도가 주님께 도달되도록 홈페이지에서도 평일에 각 파트의 파트 연습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살롬 찬양대

대장: 권순영 안수집사

인원은 120명 정도 되고 참석인원은 100명 정도입니다. 성가대는 아침부터 연습을 한다.

수준높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목표로 연습하고 있다.

음대 교수이신 이동훈 집사의 지도로 미숙한 분들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고 있다.

자체 행사로 군부대 위문과 1년에 1번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연다.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유기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자체 모임을 수시로 가진다.

찬양대원들끼리 음악회를 가지면서 전공자가 특기 발표를 하며 자기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가진다.

찬양대석의 배치상 연습효과만큼 전달이 안되는 것이 작은 아쉬운 점이다.

임마누엘 찬양대

대장: 김익환집사

임마누엘 찬양대는 2006년 10월 첫 4부예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여 이제 1년 반이 되었다. 아직 두 돌이 채 안되어 임마누엘 찬양대는 곳곳한 향기가 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찬양대원 50 여명은 각자 개성이 강하다. 예수님 얼굴을 가진 신앙의 대선배, 아내 손에 이끌려 교

회문턱을 넘어왔지만 주님 찬양하는 기쁨에 늘 싱글벙글인 봉사부장, 천사 같은 목소리와 미소로 대원들을 감동시키는 청년대원, 탁월한 유머감각의 지휘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찬양대 구성원 모두 고집 세고, 목소리 크고, 자존심 강하나, 이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절제를 알게 하시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멋진 하모니를 만드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뜻뜻한 찬양대이다.

할렐루야 찬양팀

팀장: 전 진희 집사

수요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돕고 있다. 주로 연령은 20~40대 교우들이다.

10명이 찬양을 맡고 있고 5명은 악기, 2명은 엔지니어, 1명은 자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전에 연습을 시작하고 예배를 준비한다. 예배가 끝나고나서도 1시간 가량 연습을 한다.

12단계 수요공부 시작 전에 많은 성도들과 찬양을 하며 더 뜨거운 은혜를 느낀다 한다. 기회가 주어지면 소망의 집 등 외부로 찬양 사역을 간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살롬의 집에 가서 장애우들과 함께 예배드린 것이 기억에 남는다.

찬양 자체가 기도다. 함께 기도를 찬양으로 올리는 것이다.

교인들이 다같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기를 바란다.

부서탐방-교육사역본부

교육사역본부

팀장: 김영림집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알곡사역과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사역,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사역을 지원하는 사역팀이다.

교육부 교역자들과 교사, 학부모(PTP:교사,부모기도회)와 연계하며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사역을 하고있다.

금년은 교사의 달란트를 개발,활용하는 다양한 교육과 이에따른 각 부서 장들과의 협의를 통한 필요를 다양한 방향으로 조율하고 통합하여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행사나 프로그램에 치우쳐 말씀의 깊이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자녀가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를 눈물로 기도하고있다.

기도하는 교역자와 교사, 부모의 사랑과 섬김의 옥도에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알곡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유아부

팀장: 권이홍 집사



봄날의 파릇함과 너무 어울리는 유아부 어린이들 부모님과 잠시 떨어지는 시간도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친해지면서 몇 몇 아이들 외에는 찬양과 율동도 신나게한다.

전도사님의 설교말씀을 들을 때의 모습은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하다

매달 말씀암송, 생일 축하시간도 가지며 지난 부활절 행사때 교사들이 연극공연을 즐겁게 보여주었다.

다음 주일 4월20일은 교회 앞 공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린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야외에서 풀 꽃 나무 햇빛 하늘..

보고 느끼면서 귀한시간이 되리라 믿는다 4세 -5세 어린이를 꼭 유아부로 보내주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일찍부터 듣기를 바란다.

어린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30명의 교사가 열심히 봉사를 하며 출석 유아는 70여명이다

레인보우

팀장: 이 열 안수집사



무지개의 일곱 빛깔처럼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하는

통합아동부다 2부 예배시간인 9시 30분에 1층 집회실에서 10시45분까지 수업한다.

12분의 교사들과 70여명의 아동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는 상징이다.

이 약속을 믿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즐거워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한,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하고 있다.

찬양과 율동으로 마음을 열고, 교사와 아동들이 하나가 되어 즐거운 게임을 통하여 교회는 신나고 재미있는 곳이며 예배를 통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심어 준다.

소년부

팀장: 윤성진 안수집사

초등학교 5. 6학년 어린이들이 평균 100여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30여명의 선생님이 섬기고 있다.

주일 오전 11시30분에 3층 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사 기도회와 경건회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 하고 있으며,

반별로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매달 찬양예배를 통하여 찬양의 즐거움을 배운다. 소년부 살롬 찬양대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찬양과 악기에 은사가 있는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매주일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특별히 이 정원 권사가 교재를 만들어 새신자교육 하고 있다. 새신자 과정을 마치고, 등반하여 열심히 활동 하는 아이를 보는 것도 교사들의 즐거움이다.

중등1부

팀장: 지호선 안수집사

살롬! '굳건한 믿음(Faith)과 산 소망(Hope)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다.(Love)' 매주 9시 30분 소예배실에서 모여 예배하는 중등1부는 예수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 가득한 '팝콘가족'이다. '팝콘(POP.CORN)'의 POP은 People Of Prayer' 기도의 사람들'의 약자이며, CORN은 Cornerstone의 줄임말로 '초석, 기초, 모퉁이돌', 즉 기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퉁이돌이 되자는 의미다. 중등1부 안에는 3개의 Cornerstone(팝콘 기도모임)이 존재한다. 주일예배 후 진행되는 중등1부 기도모임(교회)과 정신여중 목요 기도모임(학원), 그리고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학부모 기도모임(가정)이다. 중등1부의 모든 가족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알곡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드린다

중등 2부

팀장: 김성윤집사



작지만 사명감에 사로잡혀 섬기고 있는 중등2부는 9시 30분에 3층 중3

학생만이 예배드린다.

평균60여명의 학생들이 예배드리고 22명의 교사와 스태프가 섬기고 있다.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청소년기 학생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부서다.

청소년의 시기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 지난 4월 첫 주 봄세례식에서 29명

의 학생들이 세례 및 입교를 받았다. 금년에는 학생들의 학교를 점심 시간이나 방과 후에 심방할 계획이며 전도에 힘쓰려한다.

고등부

팀장: 김낙균 집사

매주일 9시30분, 지하 중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학생들이 주축이 된 찬양팀의 찬양

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기악반의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말씀으로 청소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1월 수련회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집회와 선생님들의 직업특강으로 통해, 하나님 나라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각자의 생각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목표의 재정립과 현실의 고민을 담아내며, 자기성

찰의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여름수련회와 일본 초청 방문, 그리고 복지원 방문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세계를 품는 비전 그리고 이웃을 향한 봉사와 나눔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고등부에서는 매주 금요 기도회와 학교 급식 심방, 아침 등교 전도, 토요일 뮤직아카데미 과정 등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 된다.



어와나 캠프

2008 Awana Vision Trip "KA AWANA 2008"

2008년 2월 15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님의 교회 어와나 T&T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믿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Love one another deeply, from the heart, 1Peter 1:22)라는 주제로 한국 4교회와 미국 2교회가 연합한 KA AWANA 2008를 다녀왔습니다. 미국나성영락교회와 동양성결교회 어와나 친구들과 홈스테이, 어와나, 게임즈를 함께 하고, 미 서부지역을 일주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녀온 친구들이 어와나 카페에 올린 소감문 일부를 소개합니다.

Awana 멋진 광경도 보고 미국 친구들과 게임도 하며 미국에 활기차게 갔다 왔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의 선생님들은 총각이나 처녀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와나를 해 지금 선생님까지 온거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클 때까지 열심히 어와나를 해서 멋진 어와나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송지원)

Awana 아이들과 함께 미국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마음 가득 감사를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한 아이 한 아이 개성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한 아이들을 각각 맞추

어 주시고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인솔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는지 오늘의 여행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쑥쑥 자라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여러가지 느끼고 깨닫고 돌아온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며 섬김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은정 집사(석주찬 어머니)

세례

허윤정



결혼식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우리 결혼했어요
정식 부부가 되었음을 알린다



세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것을 증명하는 의식이다

※알립니다※

- 다음호(228호)는 5월 11일에 발행됩니다.
- 지난호(226호) 구제사역팀의 제목이 꿈나무사역팀으로 잘못 되어 바로 잡습니다.

축구선교팀 믿음 나누며 친목을 나누며



지난 9일(수) 오후 길가에교회와 주님의교회 축구선교팀간의 친선축구시합이 정선여고 운동장에서 열렸다. 오후 2시 반에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길가에교회 이인호담임목사의 기도 후 경기에 들어갔다. 주님의교회 선수로는 김창안장로(부단장)와 이용수안수집사(감독)를

비롯하여 20여명이 출전하였다.

3셋트로 벌어진 게임에서 경기결과는 무승부와 다름없는 8:7로 주님의교회가 승리하였다. 봄비 내리는 중에도 길가에교회 한덕현장로와 20여명의 길가에교회 교우들이 열렬히 응원하여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축구선교팀은 작년 10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이고 있는데, 축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나누고 있다.

길가에교회 축구선교팀과는 5월에 동화고등학교에서 한번 더 경기를 하자고 약속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김태원 집사

2008.4. 당회결의사항

- 20주년기념사업예산청원 50,000,000원을 허락하기로 하고 교회 엠블럼은 현재의 도안을 표준화하는 선에서 추진하기로 하다.
- 20주년교회사 편찬위원회 구성은 중장기발전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 송파구 지역주민을 섬기는 교회사역에 관한 건은 다음 당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항존직 선거관리안을 거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후보대상자 추천자 자격 내용 중 장로후보대상자는 당회원과 항존직(은퇴장로, 은퇴안수집사, 은퇴권사포함)이 추천하고, 안수집사후보대상자는 당회원과 안수집사(은퇴안수집사포함)가 추천하며, 권사후보대상자는 당회원과 권사(은퇴권사포함)가 추천한다. 장로후보자 공고시 후보자의 배우자이름, 직분, 봉사부서는 기재하고, 후보자의 사회경력에는 기재하지 않기로 하다.
- 소방안전설비 개선 1차공사 예산청원 68,000,000원을 허락하기로 하다.
- 12단계성경공부팀의 추경예산 청원 22,603,990원을 허락하기로 하다.
- 정신학원 수위 용역비 인상 청원에 따른 교회부담비용(현행 880,000원에서 990,000원으로 인상)을 사무국에서 집행하기로 하다.
- 결혼 피로연 뷔페가격조정요청 건은 봉사사역본부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 헌혈행사를 청년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기로 하다.
- 정신학교와 주님의교회 사이의 협의체 구성은 현 강당운영위원회가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것으로 하다.
- 당회서기의 선출 및 당회서기의 역할, 사무국운영방식은 차제에 담임목사가 행정장정에 기초한 방침과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하다.
- 실천신학대학원의 박원호 담임목사 이사요청을 승인하기로 하다.